

# 자각몽을 꾸는 동안 필요한 것은

ジョンヨンファ  
交換留学生 韓国

“누군가가 저에게 와카야마에서의 유학 생활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저는 선잠을 자는 동안 꾸는 자각몽과도 같았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유학은 한국의 대학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저에게 주는 선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와카야마에서의 유학은 선잠이었고 유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선잠 동안에 꾸는 꿈이었습니다.

‘꿈만 같은 생활’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꿈. 즉, 자각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각몽을 꾸는 동안 꿈의 내용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위해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캐리어를 끌면서 저는 세월의 녹이 눈에 띄는 작은 역에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의 선잠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은 제가 처음 와카야마에 발을 내딛은 히가시마츠에 역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가는 길. 길의 주변은 무척이나 조용해서 캐리어의 바퀴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특히 귀를 간지럽히던 것을 지금도 떠올립니다. 첫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 와카야마의 첫인상은 시골이었고 그 인상은 제가 유학을 끝내 한국에 돌아갈 때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와카야마의 생활은 제가 첫인상에서 느꼈던 시골의 인상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는 3년간의 한국대학교에서 치여 살았던 제게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 일으켜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조용하고 온화한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와서 항상 이 물음에 답을 생각했습니다. 낮가림을 하는 제가 조용한 분위기에 적응해서 수업이 끝난 뒤에 곧바로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꿈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모처럼의 유학생생활을 후회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짧은 선잠 같은 유학생생활 동안에 꿀 자각몽을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적극성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극성의 중요함은 제가 병역을 수행하고 있을 때 배웠던 것으로 처음 자대에 왔을 때 아무 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어야만 했던 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동의 첫단계이며 관계의 시작이다.” 라고 이등병이었던 제게 선임이 직접 가르쳐주었습니다. 소심한 저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본어로 ‘뽀뽀하다.(厚かましい)’라던가 ‘낮두껍다(図々しい)’와 닮아 있습니다.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병역생활을 문제없이 해내었고 유학생생활에서도 제가 원하는 바인 ‘꿈만 같은 생활’을 위해 적극성을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이 비어 있다면 방에 박혀 있지 않고 어딘가에 갔습니다. 여러 군데의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혼자서 여행을 다니거나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곳과 이벤트가 있다면 무조건 참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일로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을

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그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아서 저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언어교환을 위한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의 여행으로 갔던 장소를 유학생에게 소개해서 여행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계기로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학교의 이벤트에서 만남 일본 학생들과 친구가 되거나 하면서 저는 밖에 나와 온 것뿐이었지만 여러 만남들이 저에게 따라왔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동안 저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과의 연결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서 점점 만남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클과 아르바이트의 활동, 여러 사람과 여러 장소에서의 술모임 등에 참가하는 것. 이러한 것들 전부 저에게 있어서 공부라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제가 바라는 ‘꿈만 같은 유학생생활’ 이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사람이 되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혼자서 살아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외국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결정한 시점에 자신이 바라는 생활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 일본어 실력, 환경 등의 탓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과 우연히 만나는 것이라든가 타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기대하는 것은 아닐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입장은 현지인의 시점에서 보면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

이것이 제가 짧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생활스타일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면 자신이 꾸는 꿈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치 자각몽처럼 당신이 바라는 꿈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